

4.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1-11절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통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낸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낸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도 거기 계셨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일어난 일은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적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려고 보니 ‘기적’이란 예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듯싶습니다.

인간들의 ‘필요’가 자신들의 한계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한 제목 중 한 단어인 ‘상관’이라는 말이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현대적인 영어로 표현한다면, “it's not business!”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구분하

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거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그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한 관계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죠. 혼주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It's is not business!”가 맞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로, 그 집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과 별고 상관없는 일 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단순한 손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은 단순한 손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혼인잔치에 관여할 만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잔치의 ‘주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계속되는 기적들에서도 이런 관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으셨던 ‘관계’의 문제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오고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 후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 ‘관계’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NIV 성경의 표현이 훨씬 와 닿는 듯합니다.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마리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대한 물음에서 마리아는,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말에 순종하는 종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은 그 말을 명령하는 주인에 대한 믿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신실하고, 조금 믿으면 적게 신실합니다.

믿음이 없는 ‘신실함’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굴종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 순간 관계가 어떤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나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수태고지’를 받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인해 기쁨으로 받아 들였지만, 30여 년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이기보다는 ‘아들’이라는 느낌이 더 들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도 인간적으로 얹혀있는 관계에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것이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순간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관계를 생각해야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별로 위기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혼례를 치루고 있는 혼주에게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손님으로 청하고’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해 초 어떤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에 가정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마다 울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사연이 있나보다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러던 중, 면담 요청이 왔고 그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회사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이야기 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도, 웬지 피곤해 보이고 말도 어눌했지만, 곧 팬찮아졌던 아들이 그 날 밤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깨나지 못하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몇 년간 신앙을 떠나 있던 가족이 다시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을 신앙생활을 하던 중,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가족 위로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그냥 쓸 수 없어서 ‘생명 값’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부모가 그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현금으로 써 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 가정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맞는데,

왜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될 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아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 ‘관계’를 다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픔과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깊이 물으시고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명령 그리고 단순한 순종

저는 오늘 일어난 기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참 무모한 명령을 내렸고, 하인들은 참 단순하게 순종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크기는 무모한 명령과 단순한 순종이 만나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6-8절을 보겠습니다.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무모한 명령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인 항아리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단순한 순종’이란, 아무런 연관성도 생각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너무 순종을 해서,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7-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시의 운율을 보는 듯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명령하고 순종한 대로 한 일들이 기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 었도다 하니라

지난 주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50-51절.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단순이 손님으로 머물려 계시는 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굳이 표현하자면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면 좋을 듯합니다.

2019년 12월 대만을 방문에 카오슝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만과 대만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단지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의 기쁨을 주신 것이죠.

제가 첫 설교를 했던 교회는 [대사명교회 (the great commission church)]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큰 교회로 성장하던 때, 성도들의 숫자가 출석 3천명을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12명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 버린 상황이었죠. 건물을 다시 지었지만 건축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날 저녁 말씀을 마쳤을 때, 앞으로 나아온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고. . .

그날 제가 설교한 제목이 “예배하라”였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교회가 예배만을 자랑할 만한 교회인데, 부흥이나 성장의 이야기라면 몰라도 왜 예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날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셨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던 ‘목회자는 모래 바닥에 코를 쳐 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것 아냐’라는 말씀에 이 분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빚을 갚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 날 설교를 한 저에게도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니 자비량으로 설교를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다른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그 목사님은 사모님과 아들 모든 교회 직원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신의 목회와 교회에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나이 많은 이 목사님이 울면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별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분이 나의 인생에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정점’은 무엇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나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고 되어 있지만 ‘믿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면 제가 권하는 것이 있죠. 그 때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 번 말씀을 보자고 말입니다.

전에게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기다리고 찾던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쾌히 그들의 이해 속에서 납득이 되는 분을 따라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나나엘의 예를 통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임을 그들이 보았을 때,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분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으라’라는 말보다 ‘따르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는 마땅히 따라야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므로 ‘따라야’ 하는 이유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강의를 엮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엘리자메스 엘리엇은 아우카부족을 선교하려 에콰도르에 갔다가 한 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5명의 선교사 중에 하나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글을 모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고,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들어가 와오라니 부족과 함께 16년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년 후에

27개월 된 딸을 데리고서 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세 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16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결혼한 신학자 에디슨 레이치는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땅히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책에서

나는 처음으로 ‘왜?’라고 절규했다. 웁처럼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토로하는 ‘왜?’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로 답하셨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였다. 당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 없었다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와 확신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따를 만한 이유가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 벼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 벼거음을 넘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두 번째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야말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묻도록 인도하는 순간이구나!

나도 한 번 단순한 순종이 무엇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대’할 것이 생겼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으니 말입니다. 11절 말씀.

//.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일.

그런 일을 기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